ECONOMY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지역 현안, 달빛 교류로 해법 찾는다

광주-대구상의, 대구서 달빛경제교류협의회

철도예타 면제·AX사업 신속 추진 등 공동건의

광주상공회의소와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계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광주상의는 최근 대구에서 열린 제12차 달빛경제교류협의회를 통해 대구상의와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양 지역 상의 회장단 20여명이 참석해 달빛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AX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국비 반영, 신공항 건설사업 조속 추진, 경제 관련 법안의 신중한 검토 등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미국 관세정책과 내수 침체로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놓인 현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 상법, 노란봉투법 등 경영을 위축시키는 법안들의 잇따른 개정·입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법안을 신중히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 입법을 병행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광주와 대구 경제계가 힘을 모은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며 "달빛철도 조기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대구 통합신공항 건설 등 양 지역의 핵심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청년들이 모여드는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미래세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광주상의는 최근 대구에서 열린 제12차 달빛경제교류협의회를 통해 대구상의와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그동안 달빛경제교류협의회는 양 지역의 공동의제를 개발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내며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영호남 상생과 발전을 위해 경제계가 더욱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달빛경제교류협의회는 지난 1998년 광주상의 의원단이 대구상의에 방문한 것을 계기로 시작, 2018년 공식 협의체로 출범했다. 그동안 주52시간제 보완,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에 공동 대응하며 양 지역 경제계의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추석 선물, 과일·소고기 선호

aT 조사…구매 예산은 16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추석 선물세트·성수품 구매의향 조사' 결과, 과일류와 소고기가 명절 선물세트 선호 상위 품목으로 나타났다.

aT는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3000여명을 대상으로 귀성 의향, 명절 선물세트·성수품 구매 계획, 예산, 시기, 구매처 등을 종합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올해 추석 귀성 의향은 45.8%로, 지난해(47.1%) 대비 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세트 구매 예정 품목은 사과(17.3%), 과일 혼합세트(17%), 소고기(15.8%)가 상위 3개로 집계됐다. 특히 과일 혼합세트는 지난해 3위에서 올해 2위로 순위가 상승했으며, 구성 품목으로는 사과, 배, 샤인머스캣, 복숭아, 포도 순으로 국산 과일 선호도가 높았다.

평균 구매 예산은 16만원으로, 5만~10만원대를 선택한 응답자가 31.7%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7만원보다 다소 낮아, 올해는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매 의향 조사에서는 소고기(30.3%), 사과(15.1%), 나물류(14.4%), 돼지고기(6.7%) 순으로, 21만원 수준이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지역 공헌·공동체 가치 확산 온힘

롯데아울렛 남악점-전남자원봉사센터 협약

롯데아울렛 남악점은 11일 전남자원봉사센터와 지역사회공헌 및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지원에 나선다. 또 지역사회 소외계층 나눔 문화 확산 등을 공동 기획 및 운영한다.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자원 봉사,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전개한다. 송대웅 기자

광주 공예문화상품, 파리박람회서 3억 계약 실적

광주디자인진흥원, 메종&오브제 공동관 운영

한경희 조형연구소 명품브랜드 협업 제안받아

광주지역 공예문화상품들이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2025 파리 메종&오브제'에 참가한 지역 5개 공예공방들이 220여건의 바이어 상담과 함께 3억원 상당의 계약 실적을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현지시각)까지 닷새간 프랑스 파리 노르빌팽트 전시장에서 열린 '파리 메종&오브제'는 140여개국 2300여 브랜드가 참여하고 7만여명의 바이어가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라이프스타일 박람회이다.

3년 연속 파리 메종&오브제에 참가한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전시 중심부인 공예존(Craft section)에 36㎡ 규모의 광주공동관을 조성하고 더자기플러스, 에이핸즈협동조합, 한경희조형연구소, 수다도자기, 연재 등 5개 공예공방 60여종의 공예상품을 전시하고 각국 바이어들과 상담을 진행했다.

공예 명장인 한경희 대표는 한지 소재 가방 등 9종의 상품을, 에이핸즈협동조합(대표 임정하)은 '액막이 명태키링' 등 섬유상품 7종을 각각 선보였다. 더자기플러스(대표 정지윤)는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차곡차곡' 등 23종의 도자상품을 내놓았다. 이 밖에 수다도자기(대표 이영순)와 연재(대표 김솔)도 달항아리 등 26종의 상품을 출품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 공방들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해외 바이어와 220여건의 수출상담을 벌였다. 또 3억원 상당의 현장 판매 및 계약 의뢰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0여건의 비즈니스 상담과 2억원 상당의 판매 실적에 비춰 광주 공예상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한경희 조형연구소 한경희 대표(공예 명장)는 파리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명품브랜드 업체와 '한지 피크닉 가방'으로 협업 제의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박람회를 통해 세계적 커피체인 회사와 컬래버 상품 '액막이 키링'을 출시한 에이핸즈협동조합에 이어 또다시 한경희 조형연구소가 세계적 명품브랜드 회사와 협업을 예고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광주 공예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프랑스 파리 노르빌팽트 전시장에서 열린 '2025 메종&오브제'에서 한경희 대표(오른쪽 첫 번째)가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 골목상권 '9월 동행축제' 개막

5개 상권 참여…특산품 할인·공연 등 다채

소상공인 매출 회복·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비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가 막을 올린다.

광주·전남에서는 5개 골목형상점가와 야시장이 참여해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민생경제 활력 도모에 나선다.

11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한다'는 취지로 9월 한 달간 광주·전남 곳곳의 상권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과 야시장에서는 지역 특산품과 먹거리, 생활용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도 마련된다.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돼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쇼핑과 여가를,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 기회를 제공한다.

전남대상대 골목형상점가는 '쌈으로 잇다, 맛으로 맛나다'를 주제로 매주 금·토요일 야시장을 열고 광주 대표 먹거리인 상추튀김을 판매한다.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남광주시장은 12일 '동행축제'와 더불어 26~27일 '가을바다 축제'를 준비해 풍성한 먹거리와 공연을 선보인다. 무안전통시장은 '캠핑 품은 황토골 야시장'을, 광주 남구 군분로에서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토요야시장'을 각각 매주 토요일 운영한다.

나주목사고을시장은 20일 '밤소풍존'을 마련해 시민들을 맞이한다.

이처럼 각 시장은 저마다의 특색을 살려 방문객에게 즐길 거리와 살거리를 동시에 제공하며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종찬 광주전남중기청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지역민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제의 뿌리를 지탱하고 있다"며 "동행축제가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선순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